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전북대 - 외국 대사 뜻 모아

주한 모로코대사, 글로컬 위원장 맡아
페루·르완다 대사 등도 자문위원 활동
국제캠퍼스 구축·지역 정주 여건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대사들도 뜻을 모았다.

실제,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대가 구성한 글로컬대학 위원회에 사피 하사디(Chafik Rachadi)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페루 대사와 르완다 대사, 베트남 후에대학 총장, 대만 중흥대학 총장 등이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국제캠퍼스(센터)를 구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전북도와 연계한 특화교육과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국제캠퍼스(센터)에서 1년, 전북대에 3년을 수학하는 '온라인 루 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해외 주요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국제캠퍼스(센터) 구축 그리고 현재 전북대가 주도하는 아시아 대학교육연합체(AUEA)의 확대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것이다.

또한, 학칙 개정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편입제도 도입과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복수학위 국가의 다양화 등을 모색해 2028년까지 5,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초청 단기 문화체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빌딩코리아'의 참여대학을 더욱 늘리고, 새만금의 해양레저나 남원 무주 진안 등의 생태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노력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이들이 실제로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특화형 유학생 지역산업 현장실습 및 인턴제 도입과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전북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 특화형 산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 가족 기숙사를 확대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주거 환경 안정까지 지원한다. 또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제 혁신, 장학금 확대, 재정능력 지원, 지선학과 연계한 진로-취업 지원 등을 위해 RISE 체계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유학생 유치단체 및 학업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수요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졸업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유학생 5천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우수한 유학생들이 전북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카본 블랙 이용 광서터 개발

전북대 임영진·김민수 연구교수
"온도 의존성 낮아 어떤 환경서도 빛 투과 가능"

전북대학교 이승희 교수 연구팀의 임영진·김민수 연구교수가 일크의 주요 원료인 카본블랙 입자와 전기영동을 접목해 근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광대역 빛의 제어가 가능한 광서터를 개발해 화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동차 유리창과 선루프 등에 적용 시 개방감 및 뛰어난 열 차단 효과로 미래 지능형 자동차 시장의 핵심부품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전기적 신호로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존 PDLC를 이용한 스마트 윈도우는 전압을 이용해 빛의 산란과 투과를 가역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빛의 산란을 이용할 때 필연적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만을 제어할 뿐 아니라 구동 전압이 매우 높으며, 고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태양광에 노출 시 변색됐다. 또한 동작 온도의 제한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만 적용되고 소비전력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교수팀이 빛을 광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카본블랙 입자를 유전체 오일에 분산시키고 입자의 위치를 전기적으로 제어해 빛의 효율적인 차단과 투과를 구현해 낸 것.

이번에 이 교수팀이 개발한 광서터는 카본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외선에 의한 변색의 우려도 해소하고, -50도에서 120도 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낮은 전압으로도 구동이 가능해 극한의 외부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

임영진 연구교수는 "카본블랙을 이용한 광서터는 20V 내외의 낮은 전압으로 구동되고 전압인가를 하지 않아도 투명 상태가 유지되는 전기생인자형이 구현된다"며 "온도 의존성이 낮아 어떤 환경에서도 빛의 투과 및 차단이 가능한 매력적인 기술로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임영진·김민수 연구교수와 전현수·한연진 석사과정생이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나노기술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스몰(Small, IF=15.153)' 최신호에 게재됐다. /정은성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도교육청, 오늘·내달 1일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대상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과 전주 세계평화의전당에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의 이해를 돕고 내실 있는 학교지원 방안 모색 및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자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도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론과 각론 및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이다. 특히 학교급별로 나눠 1차는 유·초등교육전문직원 대상으로, 2차는 중등교육전문직원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1차 연수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운영역 교수가, 2차 연수에는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교육과정 담당 홍원표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육전문직원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내실있는 학교지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네덜란드의 프리마(PRIVA)사 회장단이 24일 유리온실 개축 기념으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총장인 임영진 교장을 방문, 특강을 가진 뒤 복합환경제어 시설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프리마사 회장단,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방문

신축 유리온실 개축 기념

네덜란드의 프리마(PRIVA)사 회장단이 24일 유리온실 개축 기념으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총장인 임영진 교장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프리마는 센서 및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갖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제공 온실 내 시스템 자동화를 담당하는 복합환경제어 프로그램 회사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농림수산식품포장정보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최근 개축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총장인 임영진 교장과 유리온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Méry Prins 프리마사 회장을 비롯해 Martel Koo 프리마사 기술본부 부사장, Manuel Madani 프리마사 아시아 지역 대표, 내영욱 미푸코(주)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프리마의 Méry Prins 회장은 종자산업 및 시설원예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미래 농업의 방향성 및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둘러봤다.

김용호 교장은 "우리 학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위치한 김제에 전국 유일의 종자산업과를 보유한 학교"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교사 연수 등 산학협력에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5급
승진대상자 발표
내년 1월 1일자 임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5급 승진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전 5급 승진대상자는 교육행정 15명, 시설 1명, 공업 1명, 사서 1명, 전산 1명 등 19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7~22일까지 기해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 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5급 승진대상자는 업무능력 우수자 선발 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또 집단토론 평가를 교육이수제로 변경해 승진심사 대상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업무실적 평가 제도를 신설해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5급 승진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첫 선발"이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된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부모회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창조미래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교 회계에 편성된 학부모 지원 예산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전북학부모회협의회 회 조례 안내와 학부모회의 인성적 활동을 위한 컨설팅, 학부모 공모사업의 절차와 우수사례 공유 등 민원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정책 TF팀을 구성, 2024년 학부모회 수렴과 동영상 제작에 학교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담당 교사가 학부모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회 수렴은 학교당 3권씩 배부되며, 동영상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LINC3.0 사업단
스마트인재개발원과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3일 스마트인재개발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두 기관은 전주기전대학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졸업예정자를 위한 전용 교육과정 개설, 입학 및 취업 지원 교류 △대학 특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 지식, 기술, 정보공유 등이다. /정은성 기자



23일 전북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기반 미래교육과 관련된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대, 베트남 빈 대학과 '맞손'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통해 빈 대학 역량 강화
초청 연수 차 전북대 방문... 수의학 분야 우수시설 찾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4일 베트남 빈(Vinh)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재선정된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8월부터 베트남 빈 대학에 수의학부를 신설, 축산 분야 교육·연구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빈 대학의 트란 바 티엔 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초청연수 차 전북대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북대와 베트남 빈 대학 간 인·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빈 대학은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한 글로벌화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방문단은 오는 28일까지 전북대에 머물며 전북대 농

생대, LINC3.0 사업단, 전자공학부 등과 협약을 체결, 대학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와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을 위해 먼 길을 와 준 빈 대학과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이 더욱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재선정을 통해 2030년까지 27억여원을 지원받아 빈 대학교 수의학과 신설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보급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은성 기자

'기후변화 대응... 농업 미생물과 마이크로 바이옴'

우석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고부가가치 농생명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23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4일 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식품생명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 재학생과 대학원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장우석 미국 텍사스 알링턴 대학교(UTA) 생물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후-스마트 미생물 생비료 접



종제 개발과 '공' 고수할 상태 유지를 위한 미생물 군집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교육에 참석한 학생 및 관계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농업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총괄책임자인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은 "현재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연구 개발 트렌드는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탄소중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로 기후 환경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학교는 지난 9월 Net Zero 2050 기후재단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연구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 함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 된 교과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